

workerssolidarity.org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노동자연대 

삼성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삼성의 '75년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고,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고 있다. 삼성에 맞선 투쟁은 전에도 있었지만, 삼성 노동자들이 규모 있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는 것은 처음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배가 고파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만 30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순이익을 남기며 배를 불리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강요당했다.

“아침 8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에도 일합니다. 성수기에는 주 100시간 이상 일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일이 없을 때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노조를 만들고 점심시간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점심시간도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면 10분, 20분 줬어요.”

“고층 아파트 벽에 달려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목숨 걸고 수리하는데, 안전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과 여름 휴가 한 번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96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급도 없이 제품을 수리한 개수만큼(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적은 비수기에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배를 곶고, 성수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 몸이 곶는다.

지난해 칠곡센터의 한 노동자는

삼성 지배자들의 돈잔치

삼성전자 2013년 순이익 30조 4천억 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공개 재산만 13조 원
삼성전자 이사들 평균 연봉 52억 원



VS



삼성전자서비스 센터 AS 기사들은

96퍼센트 비정규직
비수기 9달 월급 100만 원 미만
성수기 3달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장시간 노동

과로를 호소했음에도 회사가 병원에 갈 시간을 내주지 않아 결국 쓰러져 숨졌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삼성을 위해 죽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계속 추락해 왔습니다” 하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센터 노동자들은 협력업체 직원이므로 우리와 상관 없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매년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가서 “삼성맨의 자부심에 대해 정신 교육”을 받고,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의 지시를 받으며,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삼성은 마땅히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시신 탈취

삼성은 노동조합에 대한 악랄한 보복에 나섰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입감을 빼앗고, 3년 전 자료까지 찾아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노조 가입률이 높은 센터는 아예 폐업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해 버렸다.

삼성의 이런 악랄한 노동 탄압에 항거해 최근 양산센터의 한 노동자가 자결했다. 이 노동자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노조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이곳[정동진]에 뿌려 주세요” 하는 유언을 남겼다. 그의 3월 월급은 70만 원, 4월

월급은 41만 원이었다.

심지어 경찰은 고인의 유언을 지키려는 동료 노동자들에게서 시신을 빼앗아 화장시켜 버렸다. 노동자들은 “삼성의 사주 없이 장례식장에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될 수 있겠느냐”고 분노를 삼켰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과 동료를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삼성과의 싸움을 수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5월 19일부터 “열사의 염원을 이루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하며 파업을 하고, 강남의 삼성 본관 앞에서 동료의 영정 사진을 안고 일주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자 1천 명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노예와 같았던 지난 삶을 바꾸겠다는 ‘인간 선언’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세월호처럼,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회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삼성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투쟁 기금을 보냅니다!

계좌번호:
754-20-083257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경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재벌에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 — 우리의 가족, 친구,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삼성이 그동안 저지른 악행은 수
도 없다.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이
라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에도, 동아
시아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도, 여섯 명의 목숨
을 앗아간 용산 참사에도, 최근 박근
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추
진에도 삼성이 있다.

그런데도 삼성은 언론·법조
계·국가관료들과 맺은 거미줄 같은
인맥을 이용해 최소한의 법적 책임
도 피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은 삼성
재벌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의 실제 모
텔인 황상기 씨가 "삼성에 노조가 있
었다면 내 딸이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한 것처럼, 삼성의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 재벌에 효과
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세력이다. 삼성
계열사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최근 같은 삼
성 계열사인 삼성SDI에서도 노조가
결성됐다.

또한 이 투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밝히 드러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
용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현
재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이 간접고
용 비정규직이다(전체 200만 명 내
외). 게다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건
희·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사
내하도급법을 통과시켜 간접고용 비
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
고용이라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
이 스스로 조직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
들을 크게 고무했다. 삼성전자서비
스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년이 안
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노
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처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
쟁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긴밀
하게 연결돼 있다. 이 노동자들이 건당
수수료 폐지와 생활임금,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같은 요구를 성취한다면,
이것은 삼성 재벌에 맞서는 투쟁에
서나 간접고용의 열악한 조건을 개
선하는 투쟁에서 큰 진전을 뜻할 것
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
성한 이후 삼성은 끊임없이 노
동조합을 탄압했다. 노동조합
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일감을
빼앗고,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아직 단
체협약조차 체결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없이 건당수수료라
는 임금(제품 수리 개수당 수
수료를 받는 것)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리하러 가는 시간,
대기 시간, 작업 준비 시간 등
은 모두 무급이다. 이런 저임
금 때문에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폐업 철회, 폐업센터 노동자 고용 승계

삼성은 올해 삼성전자서비
스 해운대·아산·이천센터
를 폐업했다. 폐업으로 해당
센터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 지역
의 시민들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수리를 받
아야 한다. 삼성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거나, 노동조합의
간부가 있는 센터를 폐업해서
'노동조합 하면 해고될 수 있
다'는 본보기를 보이려고 한
다.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사용자, 이견희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는 한국
을 노동감시국으로 분류하고, 노동
자를 탄압하는 삼성자본을 규탄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브라
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삼성이 없
는 하루를 살아보자'는 캠페인을 하
고 있다.

삼성 이견희 회장은 올해 국제노
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보스' 후보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브라질 금속연맹 위원장은 "브라
질 아마존 주 삼성공장에 7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브
라질 검찰은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강
도를 높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노총 위원장은 "브카시
공단 내 삼성 공장에 2천 명의 노동
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2천 명이 인
도네시아노총 산하 금속연맹에 집단
가입하자, 삼성은 이들을 일시에 해
고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삼성 노동

자들이 파업하자, 평화적 파업이었
음에도 1천 명의 마피아를 동원해 폭
력적으로 파업을 진압했다" 하고 폭
로했다.

프랑스노총은 삼성을 '허위광고'로
고발했다. 프랑스노총 국제국장은
"삼성은 프랑스에서 '젊고 혁신적이
고 깨끗한 회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중국공장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
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을 봤을
때 이는 거짓말이다" 하고 말했다.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